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가운데 저희는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돌아와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서울거리를 보면서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거리나 전철에서 스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다른 생소한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고향은 언제나 편하고 좋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바울선교회의 선교사 수련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사역보고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고, 이동휘 목사님의 말씀과경건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후원교회들을 방문하여 즐겁고 복된 교제의 시간도 가졌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하였고 오랜 세월을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한달간 함께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 4월부터 시작된 인디안지역의 사역(산호아킨 지역의 까베까르 인디안)은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달 10월 하순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디안 사역을 돕는 사역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디안 사역을 협력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디안 사역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차로 4시간 반이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다시 험한 산길로 걸어가야합니다. 가난하고 삶의 여건이 어려워져 전략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

소외된 채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양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길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땅을 밟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땅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정상담사역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하는 이 사역은 전국각지의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상담전화 사역은 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연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돕는 사역이라 제게 보람있는 사역입니다.

부족한 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연은 사람마다 제각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해결되어지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코홀리개였던 작은 아기가 이젠 어린애가 되어 성경구절도 잘 암송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나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때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방문으로 없는 동안도 저희의 동역자인 빅톨 목사님과 클라우디아(고1학년)라는 여학생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 어린이들이 앞으로 밝게 자라서 하나님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2008년 10월 코스타리카에서
강성필 & 이은경(윤호)선교사 올림.

<기도 제목>

1. 가정상담사역과 어린이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2.인디안 사역을 위한 예배처소가 마련되도록.
3.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도록
4. 저희에게 신실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연결되도록.